

'예향 광주' 무색...예술·체육산업 종사자 가장 적게 번다

2019년 기준 광주 상용직 연 급여 2520만원 전국 최저 2년째 감소세...전국 평균보다 급여 360만원 가량 적어 종사자 전년비 361명 ↑·사업체수 3년 연속 증가 추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내건 광주에서 일하는 예술·체육산업 종사자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2년 연속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입은 이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

8일 통계청이 확정 발표한 '서비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용종사자 평균 연간 급여액은 지난 2019년 기준 2520만원으로, 전년(2640만원)보다 120만원(-4.5%) 가량 감소했다.

이 분야 상용종사자의 광주 평균 임금은 2년 연속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2630만원에서 2017년 2830만원으로 오른 뒤, 2018년 2640만원,

2019년 2520만원으로 2년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주 임금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평균 상용종사자 임금은 2880만원으로, 광주는 360만원 가량 모자랐다.

강원이 41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3490만), 제주(3180만), 울산(3090만), 인천(3030만), 충북·경북(각 3020만), 경기(2790만), 경남(2780만), 부산(2770만), 서울(2750만), 대전(2730만), 전남(2710만), 충남(2660만), 대구(2630만), 전북(2560만), 광주 순이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종사자 임금도 광

주는 최하위였다. 지난 2019년 임시일용종사자 연간 평균 급여액은 광주 89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1045만원)보다 149만원 가량을 덜 받는 수준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일용종사자가 연 1000만원 이상 버는 지역은 10곳이었고, 800만원대를 기록한 곳은 광주 뿐이었다.

열악한 임금 실태와는 별개로 광주지역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와 사업체는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 업종 광주 종사자 수는 ▲2017년 7137명(상용 3835명·임시일용 3302명) ▲2018년 8231명(상용 4201명·임시 4030명) ▲2019년 8592명(상용 4657명·임시 3935명) 등으로 늘어났다. 2019년 종사자는 전년에 비해 361명(4.4%) 증가했다.

사업체 수도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3952개(2016년) → 4188개(2017년) → 4239개(2018년) → 4282개(2019년)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올랐지만 매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19년 광주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6330만원으로, 전년(2억3350만원)보다 12.8%(298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광주 매출액은 전국 평균보다 1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 정도 모자랐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포함한 사업체당 영업비용은 2억1600만원(2017년) → 2억2400만원(2018년) → 2억4900만원(2019년) 등으로 올랐다. 광주지역에서 8시간 미만 영업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 사업체는 전체의 18.3%(전국 평균 19.2%)를 차지했고, 14시간 이상 여는 업체는 22.8%(평균 25.5%)였다.

비교 대상이 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에는 공연 예술가, 독서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노래 연습장, 체력 단련시설 영업 등 43개 업종이 포함됐다.

■ 시도별 예술·스포츠·여가 연간 급여액 (자료: 통계청, 2019년 기준·단위: 만원)

상용종사자	임시일용		
전국	2880	전국	1045
강원	4110	강원	1443
세종	3490	세종	1305
제주	3180	경북	1248
울산	3090	울산	1145
인천	3030	제주	1141
충북	3020	서울	1061
경북	3020	전남	1053
경기	2790	충남	1052
경남	2780	경기	1025
부산	2770	전북	1003
서울	2750	경남	997
대전	2730	부산	990
전남	2710	충북	984
충남	2660	인천	944
대구	2630	대전	944
전북	2560	대구	902
광주	2520	광주	89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뷰티플러스 코스메틱 페어' 진행

상품 구입시 엘포인트 제공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화장품 업계가 봄철을 맞아 가지개를 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4일까지 화장품 브랜드 4곳과 사은 행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브랜드는 엘카코리아 그룹 소속 에스티로더, 아베다, 맥, 바비브라운이다.

이들 매장은 기초부터 색조, 목욕 제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한 '뷰티플러스 코스메틱 페어'를 진행한다.

행사 상품을 사면 엘포인트 5000점을 주거나,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에 가입한 뒤 구매하면 금액별 7% 상당 모바일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모바일 앱에서 경품 행사에 참여한 최고 점수 기록자 10명에게는 23만원 상당 화장품 세트 3종이 주어진다. 10일에는 생방송으로 상품을 선보이며 온라인 단독 할인전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화장품 검본품 사용이 가능해진 지난 2월15일 이후 보름 동안 전국 매장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48.7%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4일까지 화장품 브랜드 4곳과 '뷰티플러스 코스메틱 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다시 3000 아래로...기관·외인 순매도에 하락세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96.11 (-30.15)
↓ 코스닥	904.77 (-18.71)
↑ 금리(국고채 3년)	1.139 (+0.073)
↑ 환율(USD)	1133.20 (+7.10)

8일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7거래일 만에 다시 300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15포인트(1.00%) 내린 2996.11에 마감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증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3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4일(2994.98) 이후 7거래일 만이다. 또 지난 1월 7일 코스피 종가가 처음 3000선

을 돌파한 이후 1월 29일(2976.21)과 2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로 3000선을 밑돌았다. 이전 두 차례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3000 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87억원, 1293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71포인트(2.03%) 내린 904.7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티웨이 항공, 광주~양양 노선 재개

4월 2일부터 매일 1회 운항 제휴·할인 이벤트 진행도

광주와 강원도 양양을 잇는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4월2일 광주-양양 노선과 부산-양양 노선을 재개하고 매일 1회 운항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광주-양양 노선은 오후 12시10분 광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 양양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반대로 양양에서는 오후 1시30분 출발해 광주에 오후 2시20분 도착한다.

부산-양양 노선은 오전 9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양양공항에 도착하고, 양양에서는 오전 10시40분 출발해 오전 11시 40분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6월 국내 LCC 최초로 광주-양양과 부산-양양 노선을 취항했으나,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시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노선 항공권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3월 한 달간 NH농협카드도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즉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카셰어링 업체 쏘카와 제휴를 통해 티웨이항공 예약 고객은 광주와 양양, 부산에서 2일 이상 차량 대여 시 1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 농촌인력 중개센터 35곳 운영...1곳당 5700명 목표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근로인력 알선·중개를 담당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35곳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번기(4~6월) 인력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전남에서는 20개 시·군 35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1곳당 알선·중개 목표로 둔 인력은 연간 5700명으로, 전남은 총 19만9500명을 확보하게 된다.

농식품부 측은 "올해부터 지자체와 농협 외 민간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전남 센터 수는 줄었지만 중개 목표 인력은 늘었다"고 말했다.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219개보다 20개 늘어난 239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0% 많은 연간 136만명의 인력을 중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번기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농번기(4~6월) 인력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들어온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또 도시민이 더욱 쉽게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에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파견 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 1644-7990 | ✉ cu08171@cu.co.kr

☎ 266-4150	☎ 573-4150	☎ 528-4150	☎ 572-4150	☎ 576-4150	☎ 513-4150	☎ 264-4150
------------	------------	------------	------------	------------	------------	------------